

끝내 사람잡은 AI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등으로 사육하던 토종닭 출하길이 막힌 데 비관, 50대 축산농이 음독자살했다.

6일 오전 5시경 김제시 금구면 봉모(53)씨 집에서 김씨가 제조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봉씨는 음독자살을 시도하기 전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봉씨의 조카는 즉시 부안에 사는 봉씨의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전북 김제 50대 양계농 생닭 거래 금지에 토종닭 출하 막혀 생활고에 음독 자살

누나와 매형이 봉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봉씨는 김제에서 토종닭 3만5000여 마리를 기르는 양계농으로, AI 발생 이후 출하와 입식

(병아리를 농장에 들이는 과정)을 하지 못해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종닭은 보통 입식을 한 뒤 60여일이 지나면 출하해야 하지만 봉씨의 닭 중 일부는 100일을 넘긴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 임대 기간 만료와 토종닭 출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사료값 등 운영자금(1500만원) 확보가 힘들어진 데다, 정부 보상도 받을 길이 없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봉씨의 형(55)은 “동생이 ‘머칠 전에도 토종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망하게 됐다’며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했다”면서 “재래시장에서도 생닭 거래가 금지되는 바람에 동생이 오랫동안 닭을 내다 팔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봉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우리는 예비대학생” 6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대학’에 참석한 한 신입생이 옆에 앉은 동기 와 얘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캠코 사건’ 고발된 광주시장 아들 무혐의

검찰 “의혹만으로 기소 못해”

지난해 지역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캠코 사건’과 관련 추가고발한 강운태 광주시장의 아들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관련자 기소 및 1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 뒤늦게 현지 시장 아들까지 고발하고 나선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6일 “모 문화콘텐츠 업체 대표 A씨, 이 회사에서 근무한 강 시장의 아들,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이사 B씨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핵심 피의자인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대표를 구속 기소(보석)했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공모 여부를 이미 조사한 데다 고

발내용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자치 21 측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들도 검찰이 이미 검토한 것에서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어 제기된 의혹만으로 기소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B씨가 참여자치 21 변인법 대표, 흥인회 광주시의원 등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한 검토를 하고 몇 명에겐 혐의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B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검찰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강운태 시장 측 조영환 대변인역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피고발자들에게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 귀정”이라며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광주시의 문화 콘텐츠 허브도시 건설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캠코는 3D 컨버팅 기술 개발을 목표로 광주시 측 투자법인과 미국 측 회사가 합작해 만든 법인이지만 미국 측 회사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검증 끝에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염전 노예’

노숙 장애인 2명 “일자리 준다” 꼬임에 속아 신안 외딴섬서 강제노역 3번의 탈출 시도 무산·어머니에 몰래 편지 ... 잠입한 경찰에 극적 구조

신안군 외딴섬 염전에서 흑사를 당하며 노예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 장애인들이 경찰에 극적으로 구출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서울 구로경찰은 지적장애인 채모(48)씨와 시각장애 5급 김모(40)가 신안의 한 섬에 있는 홍모(48)씨의 염전으로 30만원과 100만원에 팔려가 채씨는 5년2개월, 김씨는 1년6개월 동안 소금 제조, 농사 등 중노동에 시달리다 최근 구출됐다고 6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8년 11월 목포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고모(70)씨의 꼬임에 빠져 홍씨의 염전으로 들어갔다. 고씨는 채씨에게 밥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홍씨의 염전에서 일을 하면 숙식과 월급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김씨는 10년 전 집을 나와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12년 7월4일 노숙자 급식소에서 이모씨(63)씨를 만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담배를 주며 “광주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줄테니 같이가자”고 속여 목포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 홍씨를 소개받은 김씨는 3개월 동안 월급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목포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인 홍씨의 염전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홍씨는 이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으며 소금이 제조되는 3~9월에는 2만㎡ 크기의 자신의 염전에서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시켰고 소금제조시기가 아닐 땐 농사나 집안일 등 강제노역을 시켰다. 일을 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부러진 채씨는 제대로된 치료조차 못받아 현재까지 한쪽다리는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께 지적장애가 있는 채씨를 데리고 탈출 3번 시도했으나 육지까지 배를 타고가야하는 섬의 특성상 번번히 홍씨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 전화 등을 사용할 수 없었던 김씨는 지난달 13일 읍내에 나간 틈을 이용해 어머니(66)에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전해받은 경찰은 소금판매업자로 위장, 현지에 잠입해 조사 끝에 김씨 등을 구출할 수 있었다.

경찰은 홍씨와 고씨 등을 영리목적 약취·유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검토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해 전국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경찰 ‘좌불안석’

경찰관 음주 사고 후 도주 사건에 뒤숭숭

품위 손상 땀 교차로 교통근무 엄포까지

현지 경찰관의 음주 사고 후 도주 사건 이후 광주 경찰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해당 경찰서에 대한 경찰청의 복무규율위반 점검이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경찰 품위를 손상시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로 교차로에 세워놓고 교통 근무를 시킬 것’이라는 등 ‘엄포성’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경찰관들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좌불안석이다.

6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광주경찰 김모(41) 경위의 음주 운전 사고 이후 경찰서 전체 직원들에 대

한 복무규율 위반 여부 등 직무 점검을 벌이고 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는데, 괜히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김 경위 사건 이후 ‘경찰 품위를 손상시킨 직원들을 도로 교차로에 세워놓고 교통 근무를 시킬 것’이라는 ‘엄포성’ 계획도 알려지면서 “때가 되면 만큼 조심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김 경위와 함께 술 자리를 가졌던 동료 경찰관들도 ‘좌불안석’이다. 광주청이 “사안이 다르고 상관도 참서하지 않은 사적 모임으로 보고 있는 데다,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적지 않다.

지난해 광주서부경찰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던 경찰관 뿐 아니라 술 자리에 함께 있었던 직속 상관들과 동료 직원들도 출출이 ‘징계’를 받았던 탓에 벌써 징계 수위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광주남부경찰은 6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광주 관산경찰서 김모(41) 경위를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김 경위는 지난 4일 밤 10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동료 경찰관인 송모(여·32) 경사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 중 길을 건너던 이모(여·30)씨 팔을 부딪치고 달아났다가 이씨의 신고로 음주사고 사실이 들쭉났다. 김 경위는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 “소주 한 병 반, 양주 두 잔, 폭탄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낮술에 만취한 선장 바다에 빠졌다 ‘구사일생’



“술을 마시고 정박한 배로 돌아가다 발을 헛디뎠다 바다로 추락한 6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게 구조,

“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목포시 북항 앞 해상에서 신안선적 56t급 연안자망 A호 선장 최모(61)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 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북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 15분 만에 구조했다.

“최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잠심을 하며 걸뜬인 술에 취해 정박한 배로 돌아가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진술.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2분(용봉지구모아미래도아파트입구코너)★

신축 4층 21개(1층 상가 2칸,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서, 벽돌시공, 엘리베이터 완비 최고위치 3면코너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공 3억, 보 1억)

★전대정문1분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에출대2분코너앞★

룸 13개 (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능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 등기완료(4층주택 사용가)

★수완지구상가(매매/임대)★

| | |
|------------------|---------------------|
| 1층매매(17.5평) 3억5천 | 1층임대(18평) 보2천 월10만 |
| 3층매매(85평) 3억2천 |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
| 3층매매(62평) 2억8천 |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오피스텔매매(원룸형)쌍촌동운천역1분★

- 원룸형 주택 11평 매3800(보증금 200 월 30만 용1,000)
- 투룸형 주택 14평 매4800(보증금 300 월 42 용1,500)
- 원룸 임대 울수리 보증금 200 월30 즉시입주 풀옵션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금매 광주은행 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금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쌍촌동 2층 주거지 674㎡(204) 다가구, 다세대 적합 매입가에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천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천 법인이전 7억6천
- 신축 쓰리룸 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생활적합 건물 합평권 월아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신축식당 대지 3537㎡(1070)건물 148평 은행 3억 임대는 5천에 3백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5억8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5억
- ▶화정동 교원공제부 1층구분점포 225㎡ 매 12억 (보1.3억, 월600만 유영프랜차이즈 입점)
- ▶게임동사우니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용9.5억 포함,직영수입 월천만)
- ▶월계동L.C티워 2층상가 960㎡ 매 19억, 분할개대형병원, 학원, 외식프랜차이즈 적합)
- ▶서구 이파트상가 1,800㎡ 매 10억(보 1.1억, 월610만, 용5.9억포함)
- ▶신창동 상가건물 매매 27억, 매매 15억

대지/전답

- ▶서구 차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5억
- ▶서구 마복동 생산복지 담 5,400㎡ 매매 21억
- ▶북구 용두동 대지 2,050㎡ 매매 6.9억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잡종지 6,300㎡ 매매 50억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41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타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상담, 접수 환영합니다

서구 차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리모델링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필,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